

투데이 칼럼

지금 출발하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나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귀중한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자.

누구나 빨리 오는 가슴과 달아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연속적인 것이기도 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의 차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일이 가끔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일컬어 운명(運命)이라고도 말한다.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진지해지게 마련이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전력투구하게 되는 것인지는 모른다.

지금의 바로 이 순간이 가장 귀중한 계기라고 여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출발하자! 최선을 다하자!

지금 곧 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단력이다. 지도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자와 기업가, 성공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단력만큼 무거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다. 어떤 일에 있어서 출발의 의미가 중요하다면, 결단의 가치 는 더욱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도전의 출발은 힘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미루다가 결심을 잃어버리는 망각 속에서 산다. 자기 개발을 위해 스피치학습 연마가 뜨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고 만다. 양팔이 없는 장애를 초월해서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 선 '살아있는 비너스'로 불리는 '헬리 스타퍼'가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회에서 "인생은 여짜와 도전이다. 도전이 없다면 지루하고 무 의미하다. 장애가 있어 도전이 더 강했고 그래서 지금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바로 이것이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도전과 출발에는 갈등과 고통이 뒤따르고 공포와 걱정이 앞장을 서게 마련이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결단력을 보인 이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한다.

"일찍 일어난 새가 좋은 모이를 먹을 수 있다. 잠이 채 깨지도 않은 소를 물면서는 밭을 깊이 갈 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집중력을 발휘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가능한 단순화시키자. 그런 후에 하나로 집약시켜 출발 점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도전의 출발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쫓김하라는 소리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결정을 못 내리고 주저하는 사이에, 상대방은 밭을 갈러 이미 출 발한 뒤인 것이다. 현실에 안주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출발하자. 지금은 가장 빠른 편이고, 지금 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금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곧 도전하고 출발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독자제언

농기계 안전수칙, 생명을 지키는 약속

며칠 전,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운기가 논으로 떨어졌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운기는 뒤집힌 채 멈춰 있었고 운전하던 어르신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오르막에서 굴러떨어진 사고였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분이 숨었을 땀을 떠올려니 마음이 아팠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한순간의 부주의와 방심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농민들이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농업인 안전 중앙 DB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2019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농기계 사고로 353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3,710명에 달한다. 평균 닷새에 한명꼴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운기나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의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다행히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농기계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기계 상태를 점검하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작업해야 한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은 반드시 안전프레임이나 캡을 장착하고, 전도 위험이 있는 경사로나 논밭 출입로에는 저속 운행과 충분한 폭의 출입로 확보가 필수적이다.

혼자 작업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두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고, 소음이 큰 농기계 작업 시에는 미리 신호 체계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농기계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크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의식은 나와 가족, 이웃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이주연고창경찰서 해리파출소 경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 이스라엘 국기 태우는 예멘 대학생들



16일(현지 시간) 예멘 사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형상화한 그림을 불태우며 시위하고 있다.

사설

확산되는 폭염 피해

올해도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열무 소매가격은 kg당 3,381원으로 최근 26.8% 급등했다. 수박은 개당 2만3,763원으로 지난해보다 5%, 평년보다 20% 상승했다.

재배 면적이 줄면서 배춧값도 천정부지다. 배추 한 포기(소매가격 3,381원)는 지난해보다 5.8% 뛰었다. 고온으로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8.8% 줄어들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김장철 걱정이 나온다.

바다도 필필 끓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보다 일주일 빨리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 가장 비상이 걸린 건 양식업이다. 지난해 물고기 폐사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수온이 더 올라간다고 한다.

이미 고등어는 지난해보다 36%, 오징어는 28.6% 가격이 상승했다. 이래저래 장바구니 부담은 한층 무거워졌다.

전기차 배터리도 문제다. 기온이 37도에 이르면 전기차 배터리 소모가 늘어 주행거리가 17~18% 감소할 수 있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데다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한 추가 전력 소모 때문이다.

냉각 시스템과 에어컨 필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요령을 익혀 배터리 부담 스트레스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폭염이 바뀌놓은 풍경도 있다. 바로 양산 든 남성들이다. 기온이 올라가며 과거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양산이 남녀를 불문한 필수품이 된 것이다.

인터넷에 '남자양산'을 검색하면 판매업체가 넘쳐나고 커뮤니티에도 양산을 든 남성이 어색하지 않다는 관련 글이 많다. 이른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늘면서 일부 지자체는 양산 쓰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독방에 고립된 우두머리

최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익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재구속에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 또는 압박해 진술을 오열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된다고 했다.

특검 수사 절차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버티는 사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들은 계엄에 연루된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고 부하들만 탓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에 말을 아끼던 이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었

다. "윤 전 대통령 등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시령관은 공판에서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다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구속 단료를 앞두고 군 검찰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후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불법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의심받는 특역 군인 노상원씨(전직 국군정보시령관)도 석방을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다.

그는 내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단이 홀로 고립돼 가는 모습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